

양파 수확 농기계 나왔다

농기원-전남대 공동 '자주식 수확기' 개발 올해부터 농가 보급... 노동력 획기적 절감

그동안 사람 손에 의존해 왔던 양파 수확 작업을 대신할 수 있는 농기계가 개발됐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 및 전남대와 공동으로 양파 수확에서부터 줄기 자르기, 자루에 담는 작업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자주식(自走式) 양파 수확기'를 개발했다. (사진) '자주식 양파수확기'는 양파를 수확해 줄기를 자른 뒤 500kg의 자루에 담는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기계로, 노동력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에 개발된 양파수확기는 하루에 1ha(3천 평)를 수확할 수 있어 수작업에 비해 71배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업기술원은 자주식 양파수확기 기술을 민간기업인 '한성 티엔아이'에 이전, 올해부터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1대당 가격은 4천4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



농업기술원은 7일 양파 수확자인 무안군 운남면 하묘리 풀빛 영농조합법인 포장에서 자주식 양파 수확기 시연회를 갖는다.

한편 전남지역 양파 재배면적은 8천553ha로 전국 재배면적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

목포 루미나리에 부실 시공

설치 4개월도 안돼 구조물 휘고 LED 전등 안켜져 시공업체 부도 하자보수 비용마저 시가 떠안아야

목포시가 거액을 들여 설치한 루미나리(Luminarie) 구조물이 부실 시공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공사를 맡은 업체가 부도가 나 수익 원에 이르는 하자보수 비용을 목포시가 떠안게 됐다.

목포시는 지난해 2월 시 금과 협력기업과 시비 등 모두 20억6천만 원을 들여 목포극장 앞 도로를 시작으로 4개 구간에 총 연장 920m의 루미나리를 설치했다. 그러나 구조물이 강풍에 취약하고 저가의 중국산 LED

전등이 사용돼 루미나리에 곳곳이 마치 이가 빠진 것처럼 불이 켜지지 않아 미관을 해치고 있다.

서준원 목포시의원은 "시가 최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주 골조와 상판이 구조적으로 취약해 붕괴되거나 강풍에 변형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일부 루미나리에 이미 주 골조 이음새가 절단되고 구조물이 내려앉아 쇠줄로 묶어 놓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시 의원은 "불이 켜지지 않는 LED

전등을 교체하고 일부 구조물 보강 공사가 시급하지만 시공업체가 부도나 손을 놓고 있어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도도 잠적한 시공업체가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하자보수 보험금 2천300만 원으로는 전반적인 보수에 턱없이 모자라 수익 원의 시민 세금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장마와 태풍이 시작되기 전에 구조물 안전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루미나리에가 장기간 설치돼 싫증나는 여론에 따라 동적 조명 시스템 전환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이성진기자 sslee@



화순 '물사랑 배움터' 체험현장

지난 5일 화순군 남면 용리에 문을 연 '물사랑 배움터'를 찾은 유치원생들이 체험장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환경 및 수자원 관련 전시관인 '물사랑 배움터'는 물의 소중함과 특성을 소개한 테마별 전시관과 영상관, 체험관에 강우량 측정 모형 등 32개의 다양한 테마로 꾸며져 있다. /나명주기자 mjna@

한국 3M 나주공장 병커C유 유출 모내기 앞둔 논 1천여평 피해

산업용 접착제와 광학용 필름을 생산하는 한국 3M(주) 나주 문평 공장에서 지난 4일 병커C유 180ℓ가 유출됐다.

이 사고로 인근 논과 하천에 병커C유가 흘러들어 모내기를 앞두고 있는 논 1천200여 평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이날 기름 유출사고는 오전 8시경 발생했으나 9시 30분에야 나주

시에 신고돼 농장 대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나주시와 한국 3M 나주공장 측은 70여명을 동원해 이를 통한 기름 제거작업을 벌였다.

나주시 관계자는 "한국 3M의 관리 소홀로 판단된다"며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영산호 주변 정화활동

전남도와 푸른전남21 협의회·푸른영양21은 지난 5일 영암군 삼호읍 영산호선착장에서 수변정화활동을 벌였다. 이날 정화활동에는 각급 기관단체장과 기업체 임직원, 주민 등 400여 명이 참가해 영산호 일대에 버려져 있는 각종 쓰레기를 수거했다. /영암=김현민기자 hnkim@

나주 경제 버팀목 주몽 세트장 후속 드라마·영화 유치 나서야

나주 시민 1,700명 설문 92%가 폐쇄 반대

나주시민들은 드라마 '주몽' 세트장이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으며, 이 세트장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후속 드라마와 영화 유치를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고소·고발을 자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JN TECH(대표 정형균)가 나주시민 18세 이상 1천786명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

'주몽세트장이 나주발전에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84.2%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으며, '도움이 안 됐다'는 답변은 15.8%에 그쳤다.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주몽 세트장을 추진한 나주시의 결

정에 대해서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행정행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결단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78.3%를 차지했고 '책임자 및 담당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은 21.7%로 나타났다.

'앞으로 주몽세트장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후속 드라마나 영화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57.7%, '거점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 34.3% 등 응답자의 대다수인 92%가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폐쇄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8.1%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민선 4기 출범 이후 몇몇 개인과 특정 인원이 행정기관과 단체장에 대해 고소·고발을 일삼고 있는데 대해서는 응답자의 75.4%가 '지역회합과 발전을 위해 자제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24.6%는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는 ±2.5%다. /홍행기기자 redplane@

완도경찰, 6·25때 전사자 유해 1구 발굴

완도경찰서(서장 안동준)와 국방부 유해발굴단이 지난 1일 금일읍 감목리 야산에서 6·25 당시 전사한 경찰관 유해 1구를 57년 만에 발굴했다.

이번 발굴은 지난해 6월 유가족 배정아(62·경기도 오산시)씨가 금일읍 전투에서 전사한 아버지 배세남(6·25 당시 무안경찰서 소속 경찰관)씨의 유해를 찾아달라며 금일파출소를 찾은 것이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정한대 금일파출소장은 관내 가구를 일일이 방문하는 탐문 끝에 당시 매장장소를 지켜본 김모(79)씨를 찾아냈다. 정 소장은 김씨 증언과 과학적 분석을 통해 5개소의



매장 가능지역을 선정한 뒤 지난 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들 지역을 조사해 유해 발굴에 성공했다. (사진) 정 소장은 "뒤늦게라도 유해를 가족 품에 돌려줄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도=정은기자 ejchung@

장흥군 '물놀이 안전 캠페인' 해수욕장·계곡 등 사고 예방

장흥군이 지난 2일부터 오는 8월 15일까지 75일간은 '여름 피서철 물놀이 안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탐진강과 안양 수문해수욕장, 유치봉덕계곡 일대에서 물놀이 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군은 장흥자율방재단(단장 오재일) 산하 '안전복지서비스봉사단'의 적극적인 참여로 수문해수욕장에서 피서객의 안전을 위한 물놀이 안전캠페인, 피서객 안내방송, 해수욕장 순찰, 해변 쓰레기 줍기에 나설 예정이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특색
고소하고 시원한 맛! 물회

제주도 자리돔 축제

회, 물회, 구이

점심식사 환영! 물회: 2만원 (2~3인기준)

제주도의 명물 이제 광주에서도 맛보실수 있습니다.

자리돔은 바다고기로 6월~8월까지 제주도 근해에서 잡힌다. 특히 지방, 단백질, 칼슘이 많은 영양식이며 자리 물회는 비린내가 없고 시원하며, 구수한 맛을 내는 특징때문에 제주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각광 받고 있다.

● 자리 물회 ●

제주도바다

● 위치: 화정동 서부소방서 사거리
● 단체예약문의: ☎ 062) 385-0807

BUCK SH SYSTEM ORDER MADE

BUCKISH 유동점

전국대리점 정찰가격입니다

☞주세요 이제는, 맞춤형은 기본으로!

전통 영국신사의 멋과 합리주의 정신 **벅시(BUCKISH)**의 품격을 만나 보십시오

기성복보다 저렴하고 맞춤복보다 기품있는 영국식 합리주의 맞춤정장, **벅시** 벅시만의 자랑 비접착 맞춤정장

기성복을 사지니 딱 맞는 사이즈가 없고 맞춤정장을 고집하니 가격이 부담스러웠다면 이제 영국의 합리주의 맞춤정장, 벅시를 만나보십시오.

양동파출소, 아새이극장, 북개성기, 유동점

■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57-32 ■ 전 화: 062-514-1741
■ 팩 스: 062-514-1745 ■ 휴대폰: 011-9603-1741

새롭게 단장한 신양파크호텔 Summer Wedding Festival

₩25,000부터 (7,8,9월에 한하여)

위 가격은 1인 식비를 기준으로 하며 10% 세금이 별도 부가됩니다.

● 특전사항

예약 고객에 대한 특전사항

- ※ 하객 250명 이상 예약 시
 - 아이스카빙 무료 제공
 - 3단 케이크 및 축배용 샴페인(1병) 무료제공
 - 특수효과 연출 무료
 - 웨딩 캔들, 꽃장식(꽃길,주례단상 조화), 페백실 및 페백의상, 50% 할인
 - 웨딩 전일 또는 당일 허니문 룸 1실 1박 무료제공(사우나, 조식 2인 포함)
- ※ 하객 400명 이상 예약 시
 - 아이스카빙 무료 제공
 - 3단케이크 및 축배용 샴페인(1병) 무료 제공
 - 특수효과 연출 및 꽃장식(꽃길,주례단상 조화) 무료제공
 - 웨딩 캔들, 페백실 및 페백의상 무료 제공
 - 웨딩 전일 또는 당일 허니문 룸 1실 1박 무료제공(사우나, 조식 2인 포함)

● 대표전화: 062)228-8000 ● 예약문의: 062)228-4711~2